

해방자이시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7/28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8:2, 16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살전 5:17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빌 2:13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4:12-13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겔 36:26-27

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27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

로마서 7 장 22 절부터 8 장 4 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사람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건지시는 해방자로 계시되신다. 7 장 24 절에서 바울은 가련하게 부르짖는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바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7 장 25 절과 8 장에 제시되어 있다. ...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생명의 영께서는 살아 있는 법이 있으시다. 이 살아 있는 법은 살아 있는 인격,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생명의 영의 법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법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다 (롬 8:2-3, 10-11, 34). 생명의 영의 법인 이 살아 있는 인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1, 81-8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분이므로 내주하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존재 안에 이미 설치되었으므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심지어 가장 위대한 회복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역대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활동을 통해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들에게 고약한 성질이 있다면 그들은 주님께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간혹 우연히 주님을 접촉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접촉했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역대로 이런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시간을 갖도록 격려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과 이 법을 접촉하게 될 때, 즉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주님을 접촉하는 데에서 나와 버린다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는 주님과 접촉 안에 있지만, 기도를 마치면 밖에 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다만 주님과 접촉안에 머물수록 우리 안에서 일종의 자동적인 작용이 일어나 우리의 죄악된 육체는 제거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감소되고 제거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극복하거나 어떤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인 죽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무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한다.

참된 도움이자 실지적인 도움은 자동적인 법이 작용하도록 다만 성도들을 주님과 접촉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뿐이다. 생명의 영의 법이 그러한 사람 안에서 작용할 때, 그로 인해 그의 문제는 감소되고 해결되며 그에게 있는 세균들은 죽음당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도움이다. ... 참된 도움은 생명의 영의 자동적인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주님과 이러한 접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없다. 바울은 심었지만, 그가 생명을 줄 수는 없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가 자라게 할 수는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 ... 오직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법만이 ... 실지적으로 세균을 죽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다만 당신을 접촉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요청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당신께서 저를 위해 어떤 것을 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당신과의 접촉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 이것을 실행한다면 여러분에게 죽이는 것, 감소시키는 것, 강하게 하는 것, 부활시키는 것, 일으키는 것에 대한 많은 체험이 생기리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 입증될 것이다. ...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36 장, 540 쪽, 33 장, 506-5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1

7/29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4:11-12, 16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엡 5:30

30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렘 31:33-34

33 그러나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속부분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4 그들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의 초점이자 중심은 내적인 생명의 법이다(렘 31:33 상, 비교 롬 8:2). ... 이 법은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적인 법이다. 본질에 있어서 이 법은 신성한 생명을 가리키며, 신성한 생명은 다름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이다. 이 셋은 하나이다. 생명 주시는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자 실재화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완결되신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따라서, 항상 우리 존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내적인 법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곧 그 영과 아들과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 이 법은 신성한 생명이며, 신성한 생명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 이것이 새 언약의 중심과 내용과 실재이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6, 213-2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법은 기능을 발휘한다. 이 내적인 법의 기능은 신성한 역량을 가리킨다. 이 법 안에는 신성한 역량이 있으며, 이 신성한 역량은 전능하다. 이 신성한 역량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생명에 따라 말하자면 새 언약의 법은 삼일 하나님이며, 기능에 따라 말하자면 그것은 신성한 역량이다.

내적인 생명의 법의 신성한 역량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역량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을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할 수 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체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이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조성되었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지만 신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신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정확히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된다. 이것이 내적인 생명의 법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가장 높은 방면이다.

이 역량의 또 다른 방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에 더하여, 내적인 법의 역량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한다(고전 12:13, 엡 5:30).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역량에는 몸의 모든 기능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이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내적인 생명의 법의 중심적인 위치와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란다.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단순히 그분 자신을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이다. 한 면으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한 면으로는 신성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 이 역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살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어떠한 역량인가! 더 나아가, 이 역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기능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에는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마디들인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의 기능들이 포함되고, 또한 각자의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들도 포함된다(엡 4:11, 16). 본질에 있어서 내적인 생명의 법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기능에 있어서 이 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조성하고, 우리를 온갖 기능 곧 온갖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하는 역량을 갖고 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이 법이 작용하는 것을 볼 때 기쁘고, 심지어 열광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6, 214-2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6

7/30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8:4-6, 9-10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시 23:3-4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창 5:24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물리적인 건축물 안에는 많은 시스템, 예를 들어 난방, 조명, 음향, 영상 설비 등과 같은 것들이 ... 설치되어 있다. 이제 그것들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만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 이것은 생명의 영의 법을 설명해주는 예시이다. ... 본성상 영적인 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그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작용한다. 그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생각을 그 영의 일에 두는 것, 몸의 모든 행실을 죽이는 것, 인도를 받고 외치는 것, 증언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곱 가지 항목을 행할 때 그 영의 내주하심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의 작용이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 장 2 절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나’는 일반적인 ‘나’가 아니라 스위치를 켜는 ‘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31 장, 476-47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로마서 8 장에서 바울이 이 일곱 항목을 매우 적절한 순서로 배치한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첫째로, 바울은 행함(4 절)을 언급한다. 행함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살고, 처신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자 매시간 우리가 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단지 일종의 종교적인 책으로 사용한다. ... 하나님의 경륜에는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신다.

영을 따라 행할 때 분명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게 될 것이다(롬 8:5-6).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도록 돕는 최고의 조력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성경을 기도로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영에 두어진다.

그럴 때 몸의 모든 행실을 죽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롬 8:13).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생각을 영에 두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몸의 행실이 나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죽이게 될 것이다. ...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생명이 분배된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롬 8:14). 영을 따라 행하고, 생각을 영에 두며,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그 영의 인도 아래 있다. 그 영의 내주하심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 또는 “아바 아버지!” 라고 외치게 된다(롬 8:15).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증언하게 될 것이다 (16 절).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영에 대한 것을 말할 때마다, 그 영은 우리와 함께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가 증언할 때마다, 그 영은 우리와 협력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확증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일곱 번째 항목인 탄식함(롬 8:23)에 이르게 된다. ... 오늘날은 탄식할 때이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에 관하여 우리 안에는 어떤 느낌이 있다. 오, 하나님의 왕국! 오, 하나님의 권익! 하나님의 증거! 주님의 회복!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한다. 그럴 때 우리의 탄식은 정확히 내주하시는 영의 증보기도이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나 분명한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그 영께서 하시는 탁월한 증보기도이다. 이것은 최상의 증보기도이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최상의 기도이다. 우리가 이 일곱 가지 항목 모두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일곱 가지 항목을 모두 실행한다면, 생명의 영의 법은 참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31 장, 477-48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26, 31-32 장

7/31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8:13-16, 23, 26-28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시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시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증보기도 하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증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 장의 주제는 생명의 영의 법의 해방이다. 그러나 2 절만으로는 생명의 영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3 절부터 시작하여 거의 로마서 8 장 전체가 생명의 영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생명의 영의 법이 모두를 해방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해방된 적이 없다. 생명의 영의 법은 오직 로마서 8 장에 기록된 모든 행함을 이행하는 믿는 이들만을 해방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31 장, 47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 장에 기록된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것들 중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4 절).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편에 속한 일이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스위치를 켜게 되고, 그러면 법은 작용한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 전에는 결코 작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항목은 우리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롬 8:5). 8 장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의 세 번째 항목은 우리의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13 절). 네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14 절).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로마서 8 장 14 절이 항상 영적인 인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간주한다. 사실상 이 절은 영적인 인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다. 이 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그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8 장 15 절에 다섯 번째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외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고, 이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우리가 “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때마다, 그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외치는 법을 배우라. 이것은 부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긍정적인 외침이다. 이것은 일종의 유쾌한 외침이다. ... “오, 주 예수님! 오,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기를 배우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있는 이유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이다. ... 우리 모두는 외치기를 배워야 한다. 이전에 여러분은 외치는 것이 스위치를 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둠 안에 있는가? 외치라! 여러분은 연약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족한가? 외치라! ... 단지 어떤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외칠 필요가 있다.

로마서 8 장 16 절에서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영이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의 영이 증언하고 있을 때,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 영도 증언하지 않으신다. ... 여기서의 주요 강조점은 우리의 영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한다.

로마서 8 장 23 절은 다음 항목을 제시한다. 여러분은 탄식하는 것이 스위치를 켜는 것임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실행하는가? 우리 모두는 탄식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들이 로마서 8 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함들의 일곱 가지 항목이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인도를 받고,

외치며, 증언하고, 마지막으로 탄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곱 가지 것을 행해야 한다. 날마다 이것들을 실행해 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염려된다면, 문과 창문을 닫은 다음 외치고 탄식하라. 여러분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롬 8:23) 일단 우리 몸이 죄와 죽음의 몸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우리 몸이 구속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 몸이 구속되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을 개선할 길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구속을 필요로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31 장, 472-474 쪽, 26 장, 4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33-34, 36 장

8/01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8:31-32, 34

31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4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고후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히 8:10

10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렘 32:40-41

40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겠다.

41 나는 그들을 선대하는 것을 기뻐하며, 내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예레미야서 32 장 40 절부터 44 절까지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대하실 것이며, 그들을 거룩한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다(렘 31:31-34).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분을 얻는 것이다(빌 3:13-14).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7, 22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5 장 14 절에서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이다. ‘강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에서처럼) ‘사방에서 압박하고, 한끝으로 밀어붙이며, 강하게 제한하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 한정시키며,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도록 강권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 이 사랑은 분명 우리를 제한하고 좁은 길에 한정시키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하게 한다. ... 우리가 이렇게 강권될 때, 우리는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제한 받아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기꺼이 그분의 길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 벽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에게서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사랑은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한 목표를 향하도록 밀어붙인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 장 14 절과 15 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큰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것 같아서, 어찌할 수 없이 그분을 향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강권되는 것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압도하고 휩쓸어 가는 파도처럼 강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삼켜져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야 한다. 우리는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므로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8 장 32 절부터 39 절까지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로마서 8 장 32 절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이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로마서 8 장 34 절은 계속하여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로마서 8 장 34 절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곧 하늘에 계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서 8 장

10 절에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즉 우리 영 안에(딤후 4:22) 계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 영(고후 3:17)으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 영 안에도 계신다. 즉, 그분은 하늘과 땅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 장 34 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8 장 26 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 영이시다. 이분들은 두 분의 중보자가 아니라 한 분, 곧 주 영이시다(고후 3:18). 그분은 양쪽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한쪽 끝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으로서, 아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하실 것이다. 다른 쪽 끝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 그리스도로서, 아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중보기도는 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도일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8, 145-146 쪽;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103-10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1; 3 권, 메시지 67

8/02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8:35,37-39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롬 5:5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렘 31:3

3 여호와께서 멀리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

호 11:4

4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그 턱의 멍에를 벗겨 주는 이 같았으며 부드럽게 그들을 먹였다.

시 23:5-6

5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와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로마서 8 장 37 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고난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에도 우리는 압박을 받거나 패배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고 정복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1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롬 5:5).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원수는 이 놀라운 일들에 자극을 받아 온갖 고난과 재난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롬 8:35-36).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롬 8:28).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롬 8:37).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으로 보장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나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로마서 8 장 39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 한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타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화를 내는 그러한 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한 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이 구원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 즉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정도까지 구원받았다.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 영에 의해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이 구원의 최종 목표에 이르는 정도까지, 즉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정도까지(롬 8:18, 30) 구원받는다.

로마서의 처음 여덟 장은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영원한 신격의 존재를 지니신다는 것과, 신성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신격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 장들은 또한 신격을 지니신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서 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것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분께서 결국 완결되시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생명의 영이시며,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실재와 본질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은 믿는 이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실제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다. 요약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으로 사람이 되셨고,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몸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한 영이 되셨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106-1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8/03 주일

아침의 누림

사 61:1-11

1 주 여호와와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마음 상한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포로 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묶인 이들에게 눈을 열어 줌을 선포하며
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3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머리 장식을 슬픔 대신 즐거움의 기름을 칠할 영

대신 찬양의 겹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의의 테레빈나무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들이라 불리게 하여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4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였던 곳을 재건하고 전에 황폐하였던 곳을 세우며 폐허가 된 성들을, 대대로 황폐하였던 곳들을 보수하리라.
5 낮선 이들은 서서 너희의 양 떼를 먹이고 외국인의 아들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리라.
6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들'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리라.
7 너희는 부끄러움 대신 두 배의 몫을 받고 수치 대신 자기들의 몫을 받고 환호하리라. 그러기에 그들이 자기 땅에서 두 배의 몫을 차지하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8 "이는 나 여호와가 정의를 사랑하고 부당한 탈취를 미워하는 까닭이라. 나 그들에게 신실하게 보상해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9 그러면 그들의 씨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자손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이가 그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씨임을 인정하리라."
10 내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을 둘러 주신 까닭이니 나는 마치 제사장의 머리 장식을 한 신랑 같고 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같아라.
11 땅이 싹을 내듯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듯 주 여호와와는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